

## 천 사

어찌다가 문득 하나의 관념(觀念), 하나의 현상(現象), 몇 마디의 말 같은 것 앞에 머물게 될 때가 있다. 오랜 시일을 두고 눈에 익고 귀에 젖어 아주 몸에 배어 버렸다고 생각되었던 것이, 갑자기 처음 보는 것 같은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서는 것이다.

바로 며칠 전 일이다. 보통 학교 때부터 “임마아!” 하면 “점마아!” 하고 어울렸던 대나무집 영덕이를 읍내 가는 길에서 만났다. 읍내에 나간다면서 검정 무명 두루마기에 새하얗게 동정을 갈아 달아 입고 있었다. 그리 낡지 않은 모자를 내리눌러 써서 그런지 턱이 이상하게 길어 보였다. 동행을 얻어 반가웠던 모양으로 두루마기 괴구멍에 꽂았던 손을 빼며 씨익 웃었다. 나는 잠시 동안 어리벙벙하고 그의 얼굴을 고쳐 보고 있었다. 참말이지 영덕이가 그렇게 잇몸을 드러내고 웃는다는 것을 처음 알았던 것이다. 희끗희끗한 수염에 덮인 윗입술이 말려 올라가 침에 잔뜩 젖은 다혈질(多血質)의 잇몸이 그대로 드러난 물결은 사람이 좋아 보인다고보다 차라리 딱한 생각이 들었다. 그런 딱한 생각을 영덕이한테서 느낀 것은 처음이 아니다. 영덕이라면 으레 딱하다는 생각이 이어 왔다. 무엇 때문인지 그저 막연



히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제서야 빠드러진 이틀과 드러나는 잇몸에서 오는 인상인 것을 알았던 것이다. 죽마 고우랄까 그런 사이다. 그가 웃는 것을 처음 보는 것도 아닌데 어떡해서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말인가. 우스운 일이지만 머리에 문득 솟은 것이, 꼭 있어야 할 불가결의 요소가 결여되었던 것이 그 순간에야 갖추어진 것이라는 엉뚱한 생각이었다. 즉 나의 경우, 영덕이의 얼굴을 생긴 그대로 보려면 꼭 그렇게 검정 두루마기에 달린 새하얀 동정이 있어야만 했고, 그렇게 모자를 눌러 써서 턱이 이상하게 길어 보여야만 되었던 것이다.

버스가 읍내에 이를 때까지 나는 몇 번이고 사람 하나를 격한 자리에서 졸고 앉아 있는 벼를 곁눈으로 훑쳐보고는, 그럴 법도 있을 일이라고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의 인상(印象)이 성숙(成熟)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조건——그런 상념이 얼핏 스쳤던 것이다.

하긴 이런 일도 있기는 하였다. “아까보——아까보…….” 하고 외치는 소리가 요란했을 때니깐 그러저럭 십 년 전 일인가 보다. 당시 고모가 살고 있던 마산을 들러서, 서울로 올라가던 기차 안이었다.

무척 달이 밝은 밤이었다. 삼랑진서 해질 무렵 부산을 떠난 차에 올랐는데, 타고 내리고 하는 수선 속에서 자리가 잡힐 때까지 통로에서 있는 동안, 모로 보이는 동쪽 좌석에 앉아 있는 여인에게 문득 시선이 갔었다. 반사적으로 무언지 가슴에 온 것이 있었던 것은, 만삭이 가까운 몸을 한 그 여인이 겨우 스물을 나올까말까 한 어린 모습을 가졌던 까닭이었는지——차 안의 흐린 전등과 창으로 밀려들어오는 달빛을 반반씩 받아, 음양이 짙은 얼굴이 인상적이었다. 반쯤 열린 입 모습이 어머니가 되기에는 너무 어렸다. 험직한 얼굴에 눈을 내리깐 것은 유착한 몸에 먼 길이 겨워서인 듯한데, 그러고 있는 자세는 괴로워 보인다고보다 오히려 그런 방심(放心) 속에서, 자기 내부의 것을 소중히 지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었다. 앞섰



이 벌어지도록 부른 배 위에 얹혀져 있어서 그런지 새하얀 손가락이 애처롭게 가늘었다. 무언지 슬펐다. 슬픔이 서려 아름다웠다. 앓은 모습이 너무나 잔잔하여, 그녀가 앓아 있는 곳이 봄비는 차 안이라는 것이 기이하였다. 허지만 더 난잡한 곳이면 어떻게 말인가. 어느 곳에 놓여진다 하더라도 그녀는 그저 그런 자세로 자기 내부에 배태(胚胎)하고 있는 것들——새로운 생명과 죽음——그 두 가지를 지키고 있었을 것이 아닌가.

불과 삼 분에 미치지 않는 시간이었다. 그러면서 그 뒤송송한 광선과 분위기 속에서 어린 임부(妊婦)의 아래턱에 찍혀 있는 조그만 검은 점까지 놓치지 않았던 것은 무슨 까닭이었는지 모르겠다. 그러저럭 자리를 잡은 후에도 한참은 생각이 그녀에서부터 떠나지를 않는 것이었다. 입었던 옷이 무엇이었던가는 기억에 없었건만 어쩐지 흰 옷이어야만 될 것 같았다.

삼십여 년을 같이 지내 내려온 셋동무의 얼굴을 새삼 고쳐 보다시피 한다는 것은 험어하는 말이 아니라도 무척 데면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주제에 그 혼잡 속에서 지나는 곁에 스쳐본 남모르는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도 세세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웬 까닭인가. 흔히 있는 일처럼 보는 사람의 주관에 추후에 채색(彩色)한 환상이었었는지, 아니면 영덕이의 경우같이 서서히 익혀 가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익은 그대로를 드러낸 모습이었던 까닭인지 모를 일이다.

하기야 모든 열매가 같은 시간에, 다 같이 익어야만 된다는 법은 없는 것이 아닌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송 선생(宋先生)’이었다. 교편을 잡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생 존칭을 받을 만한 인격이나 학식을 갖춘 바도 아니지만 웬지 남들이 ‘송 선상’이라고 불렀고, 내 자신도 ‘영덕이’가 ‘영덕이’라고 불러 대답을 하듯이 ‘송 선상’이라면 아무런 부자연한 느낌 없이 그대로 나를 이름하는 것이라고 듣고 지나쳤다.



그렇게 익혀 내려오던 ‘선생’이란 말 앞에서 언제부터인가 주춤거리게 된 것이다. 서산 머리에 해가 지고 갈가마귀까지 집을 찾는 황혼이 되면 누구나 무엇인가가 끝나 버렸다는 아쉬움과 안도 같은 것을 안게 되는데, 어째서 하필 일몰(日沒)이 ‘낮’의 끝만을 뜻할 것인가. 그것은 ‘낮’의 끝일 뿐더러 동시에 ‘밤’의 시초도 될 것이다.

같은 이치로 인생도 시시각각 속에 ‘끝’과 ‘비롯’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송 선생도 인자아는 좀 바람을 잡았나 보재?”

동내 사람들의 입초시에 이런 말이 오르내리고부터도 칠팔 년은 좋지 지났나 보다. 내던지고 돌아다녔던 아내가 버스 정류장 옆에서 잡화 나무랭이를 벌여 놓고 풍족하지는 못하나마 억척스럽게 살림을 꾸려 나가고 있었고, 그러는 동안에 일곱 살 다섯 살 세 살 갓난이——이렇게 너절하게 아이들이 생겼다. 성가스레 ‘송 선생’을 들먹거리고 오던 형사들이 보이지 않아 평온했다. 또 예술이니 문학이니 하는 따위 때문에 신경질을 부리지 않게 되니, 집사람들의 조심이 덜려져서 무사했다. 집에 들어가면 돼지우리 같다고 후다탕거리던 것이, 별건 묵은 오줌이 끄적스레 찬 요강을 뚜껑도 않고 윗목에 놓은 채 순갈을 들었다. 일곱 살 난 놈이 감나무에 올라가다가 나뭇가지에 걸려 한 눈을 꺾었을 때도 아이 어미가 소리를 질러 울면서 먹피가 흐르는 아이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고 배우지 못한 년이라 할 수 없다고 나무랐지만, 털어 말하여 애비에게는 그만치 난폭해지도록 기찬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던가. 하여튼 모든 것에 그렇게 희망을 잃은 정신이 육체까지도 헤어날 수 없는 절망 속에 끌어들여, 거기서 간신히 나는 이완(弛緩)된 안정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절망에 의어 버린다는 것은 절망 자체보다도 무서운 일이건만. 내 것 네 것들 가리는 타산에서가 아니라 가게는 아내가 하는 것이지 내가 알 바가 아니었고, 어찌다 아내가 없는 동안 손님이 와서 사람을 찾을 때도 마지못해 일어서서 나가기는 하는 것이지만, 아내 대신 물건을 판다



는 것보다 떠드는 소리가 듣기 싫은 심정이 더 커서였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고 보니 흥정에 에누리나 실랑이가 있을 리 없어, 남들이 ‘송 선생’은 점잖다고들 하는 모양이었다.

마을에서 무슨 모임이 있으면 꼭 참석하는 것이 버릇이 되었는데, 해방 후부터는 그런 자리에서 제법 열변을 토하는 청년들이 늘어, 가끔 충돌이 생기곤 하였다. 어째선지 그럴 때면 양편에서 나를 찾아 서로의 사정과 주장을 호소하는 것인데 그런 일에 개입하기에는 너무나 내 정신이 탄력(彈力)을 잃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런 일을 내가 알까 보냐고 잘라 말하지 않고 그저 되는 대로 두라고 무슨 암시나 하듯 얼버무리는 것은, 무슨 일을 안 된다고 단념할 만한 정열조차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그래도 자기를 가식하려는 교활심이 그런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게 하는 것인지는 나 자신도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원만하다는 평을 듣는 것이다. 어떤 때는 여럿이들 모인 좌석에서 정신이 흐리멍해질 때가 있어 그럴 때면 내 눈이 능동적인 시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무슨 거울이나처럼 거기서 왁자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수동으로 어리는 것인데, 우연히도 그럴 때 무슨 말썽이 있었던 모양으로 거기에 끼지 않았다 하여

“나락 이삭도 익으면 고개를 숙이잖나베.”

이런 터무니없는 찬사를 들었다.

이렇게 따지고 나가 보니 존어를 거꾸 포개서 비칭(卑稱)으로 쓰는 일어(日語)의 ‘기사마(貴様)’란 말이 생각나 우습다. ‘선생’이란 말 앞에 마주 서고 보니 나의 경우 그것이 존칭이라는 것이 수긍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면 ‘송 선생’이라는 칭호는 허세(虛勢)라든가 철저한 치행(痴行) 같은 것이 진정한 영혼의 위대함과 동렬(同列)로 보일 때가 있듯이, 나의 철저한 무능과 무기력을 그들이 착각한 데서 온 것 같기도 하다. 이를테면 폐제(廢帝)의 훈장이라고나 할까, 서글프고 무내용한 것일 것이다. 지금 저렇게 썩고 있지만 한때사 좀이나 썩썩했



었던가. 두뻘사람치고 대학에까지 간다는 것을 도방 사람 공부하는 것과 한가지로 볼 일인가. 천재가 아니고야 어림없는 일이지. 신문 잡지에도 이름이 자주 났었겠다. 민족 운동을 하다가 잡혀 갔을 때 일은 세상이 와르르 하던 대사건이기도 하였다. 마음이 그렇다면 그만한 공을 세웠겠다. 감투도 꽤 묵직히 쓸 뻔한데 위인이 통 허욕이라는 게 없거든. 이러는 것이다. 말하자면 나의 삶의 여백(餘白)—— 즉 ‘했더라면’ 하는 가능성(可能性)—— 그런 것에 대한 과대 망상인 것이다. 그들에게는 불우의 천재라는 것이 현재의 나의 위치였고 그런 선입관 때문에 나의 무위(無爲)가 오히려 무슨 절조(絶操)로 보이는 것이다.

나로 말하자면 의식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얼마만큼 자기의 한계를 알고 있는 것이어서 선불리 서둘러 자기를 폭로시키지 않을 정도로는 슬기로웠던 모양인데, 나 역시 무언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의식 밑에 깔려 있어 그런 것에 매달려, 그렇게라도 살아 나갈 수 있었던 것일는지 모른다.

그러기에 떳떳할 수 있는 아무런 이유도 없으면서 집안의 주인이었고, 아내나 어린것들이 어려워하는 존재일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면서, 무슨 불만 같은 것이 항상 무거운 머리에 서리고 있는 것이다.

이즘은 아주 익어 버려 무감각이 되어 버렸지만 그래도 간혹은 눈만 감으면 코를 고는 아내, 손가락을 머리속에 넣어 빗질하듯 긁어 내리는 버릇이 있어, 언제나 손톱 사이에 때가 끼어 있는 아내, 그런 아내를 볼 때 ‘나는 저것을 참고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밀어 나오는 것이다. 그럴 때면 타다 남은 초라한 의욕의 찌꺼기에 일순간 확 불이 붙어, 이 지상 어느 곳에는 그래도 몇몇 사람들 사이에 보다 뜻있고 따듯하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보람 있는 삶이 있을 것이라고 느끼곤, 아프게 그것에 동경하는 것이었다.

소녀는 그런 때 왔다.



하겠다. 일순간 무엇에 찢리거나 한 것처럼 멍뚱하고 외면했던 나는 입가에 웃음 같은 것을 띄우며 아내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쩌면 내가 아내의 숨씨를 자랑스러이 알고 있는 것이라고 그녀가 착각할 수도 있는, 그런 흐뭇한 듯한 얼굴로——사실 나는 어떤 쾌감에——복수적인 쾌감에 젖어 있었던 것이다. 아내의 연상 빙글거리는 입술 밑의 지저분한 이, 얼송덜송한 얼굴, 지리뚱한 허리——차라리 여러 아이가 빨아서 늘어뜨려 버린 쇠불만한 추악한 젖통이까지 내놓았으면——하는 충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철저하게 추악해져야만 무엇인가가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닐가 하는 엉뚱한 생각이 자꾸만 솟는 것이다.

그런 일이 있고부터는 아내의 언행이 무지하고 추해 보일수록, 또 집꼴이 말이 아닐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너그러워지곤 하였다. 그뿐더러 어쩌다가 그의 탓할 수가 없을 만큼 모든 것이 제법 되어 있을 때면, 오히려 무슨 침범이나 당한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것이다. 이를 테면 내가 철저하게 처참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條件)을 약화시키려 드는 것 같은 터무니없는 피해감(被害感)과 불만이——그 조건은 동시에 허황하나마 나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 유일의 조건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 없었더라면 주검과 진배없는 식은 마음에 이따금씩 목숨과 동경의 불뚱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날도 나는 아내가 시킨다고 병신스럽게 헛간문을 여잡으면서, 흥분과 탐욕에 이그러진 그녀의 징그러운 모습을 잔인한 쾌감에 찬 눈으로 훑고 있었다.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얼마 전부터 가게에 손님이 들어와 주인을 부르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젓먹이를 부둥켜안고 있던 큰놈이 “엄마야, 엄마야. 누가 왔대 이.” 하는 바람에 아내가 나에게 험한 눈짓을 했고, 그 눈짓을 받아 가게로 나간 것인데, 킁킁한 방을 지나서 거의 허리를 반절로 꺾어야 되는 가겟방으로 나가는 낮은 문으로 고개부터 내밀었을 때, 하마 이



있던가. 두몫사람치고 대학에까지 간다는 것을 도방 사람 공부하는 것과 한가지로 볼 일인가. 천재가 아니고야 어렵없는 일이지. 신문 잡지에도 이름이 자주 났으랴. 민족 운동을 하다가 잡혀 갔을 때 일은 세상이 와르르 하던 대사건이기도 하였다. 마음이 그렇다면 그만한 공을 세웠겠다. 감투도 꽤 묵직히 쓸 뻔한데 위인이 통 허욕이라는 게 없거든. 이러는 것이다. 말하자면 나의 삶(餘白)—— 즉 ‘했더라면’ 하는 가능성(可能性)—— 그런 것에 대한 과대 망상인 것이다. 그들에게는 불우의 천재라는 것이 현재의 나의 위치였고 그런 선입관 때문에 나의 무위(無爲)가 오히려 무슨 절조(絶操)로 보이는 것이다.

나로 말하자면 의식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얼마만큼 자기의 한계를 알고 있는 것이어서 선불리 서둘러 자기를 폭로시키지 않을 정도로는 슬기로웠던 모양인데, 나 역시 무언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의식 밑에 깔려 있어 그런 것에 매달려, 그렇게라도 살아 나갈 수 있었던 것일는지 모른다.

그러기에 떳떳할 수 있는 아무런 이유도 없으면서 집안의 주인이었고, 아내나 어린것들이 어려워하는 존재일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면서, 무슨 불만 같은 것이 항상 무거운 머리에 서리고 있는 것이다.

이즘은 아주 익어 버려 무감각이 되어 버렸지만 그래도 간혹은 눈만 감으면 코를 고는 아내, 손가락을 머리속에 넣어 빗질하듯 긁어 내리는 버릇이 있어, 언제나 손톱 사이에 때가 끼어 있는 아내, 그런 아내를 볼 때 ‘나는 저것을 참고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밀어 나오는 것이다. 그럴 때면 타다 남은 초라한 의욕의 찌꺼기에 일순간 확 불이 붙어, 이 지상 어느 곳에는 그래도 몇몇 사람들 사이에 보다 뜻있고 따듯하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보람 있는 삶이 있을 것이라고 느끼곤, 아프게 그것에 동경하는 것이었다.

소녀는 그런 때 왔다.



읍내에 있는 미군 부대에 다니는 조카가 꽤 되는 석유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끌어들이느라고 부산을 떨어, 집안이 뒤숭숭하였을 때다.

아내는 몹시 흥분하고 있었다. 마침 어린것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을 때 물건이 닳쳐들어, 매무새를 고칠 사이도 없었다. 부스스한 풀머리에 은비녀가 빼어질듯 삐딱하게 꽂힌 것이 허리통을 드러낸 꼴에 제격이었다. 퍼더버리고 거래할 수 있는 종류의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식구들이 서둘 수밖에 없는 일이었지만, 일곱 살 난 아이까지 배가 덜 차 까르르거리는 젓먹이를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부둥켜안고 어르고 있었고, 꼬리를 외로 말아올린 누렁이까지 일 보탬이나 하듯 마구 짚어 대었다. 그럴 때면 아내는 바야흐로 여장군이 된다.

“참, 억시기도 심도 몬 쓴다. 거드는 기인지 훼방 놓는 기인지, 쫓쫓.”

하고 혀를 차나 하면

“보래애, 두리애이 전방에 나가 앉았꺼래이.”

하며 명령을 내린다. 여느 때는 공연히 쟁겨 하는 나에 대한 어림성이 가시는 것도 이런 때다.

“나매(남자)가 머 그런교. 앓다 마 비키이소. 저 문이나 좀더 열어 주든지.”

드럼통 한쪽 언저리를 쥔 내 손을 고무 장갑이나 낀 것처럼 수북한 손으로 밀어젖힌다. 보기에는 고무 장갑이나 낀 것처럼 수북하고 소담한 손인데, 촉각은 부드럽지 않다. 뼈마디가 장골처럼 억세다. 나는 꾸중받은 개처럼 드럼통에서 손을 떼고, 더 열 필요도 없는 문에 손을 대는 것이다.

서둘러 끌어들이는 물건이 여섯 식구의 호구(糊口)감이 되는 것이라 그만큼 아내는 도도한 모양인데, 그럴 때 내가 것처럼 빼 없이 구는 것은 그런 생활 의식에서가 아닌 것이다. 억지로 말한다면 아내가 만족해할 때면 더욱 추해 보이는 까닭이라고나 할까.



마를 찡을 뻘했다.

한마디로 말하여 색채(色彩)였다. 눈이 번쩍할 만큼 선명한 진홍(眞紅)——이윽고 뒤뜰의 앵두꽃이 채 다 지지도 않았는데, 이것은 또 성급하게 굴치 위에서부터 드러난 새하얀 팔인 것이다. 첫눈에 너무 현란하여 미처 얼굴을 볼 사이도 없는데

“저——양초 없을까요?”

하고 고개를 가우뚱한다. 어미(語尾)가 올라간 서울말이다. 부드럽고 윤이 있고 애애하고——아니 구구스러운 그런 것들을 제쳐놓더라도 우선 귀에 설은 말이란 이유만으로, 나에겐 소녀의 말이 무슨 음악이 나처럼 울렸던 것이다.

——소녀는 종종 들렸다. 사가지고 가는 것은 대체로 양초 성냥 빨랫비누 램프 심지 치약——그런 것들이었으나 때로는 솔이라든가 부삽 같은 부엌 물건도 찾았다. 차차 안 일이지만, 소녀가 그렇게 자주 가게에 들리는 것은 옆에 있는 자동차부에 왔다가 가는 길이지, 물건을 사러 일부러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다. 어디서 오는 편진지 연달아 오는 편지를 찾으러 며칠 만에 한 번씩 차부엘 들리는 모양인데, 몇 번 오가는 동안에 버스가 늦든지 하면 가게 마루에 걸터앉아 기다리게끔 우리는 사귀게 되었다.

인중이 몹시 짧아, 언제나 가볍게 열린 아담한 입이 그녀가 한 번 끌고 온 일이 있는 암염소의 젖꼭지처럼 연분홍색이다. 부스스 윤기가 없는 피부다. 낡아서 윤기가 가신 것이 아니고 윤기가 흐를 만큼 채 자라지 못한 솜털에 덮인 어린 피부인 것이다. 대체로 강팔라 이마에서 자른 역시 솜털같이 보드라운 머리털 아래의 얼굴에도 살이라곤 없다. 그러면서 물같이 연해 보인다. 뼈(骨) 자체가 보드라운 것인가. 잠잠히 있을 때와 움직일 때의 표정이 너무 다르다. 검은 자위가 꼭 찬 눈만 하더라도 셋별같이 총총한가 하면 이내 빛을 지워 버린다. 약간 끝이 올라간 코도 광선에 따라 단정하게도 보였다가, 약간 이즈러지게도 보였다가 하여, 대체로 포착할 수가 없다. 그러



면서 단 한 가지 인상만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다. 기묘한 일이지만 언젠가 차 안에서 본 그 어린 임부가 꼭 새하얀 옷차림으로서만 떠올라오는 것처럼, 나에게는 언제나 소녀는 ‘진홍 스웨터의 소녀’인 것이다.

소녀는 일주일이나 보이지 않는가 하면, 사흘돌이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갑자기 안 나가던 가게에 줄곧 앉아 있기가 켜겨서, 전 같은 면 무엇보다도 귀찮았던 아내의 외출이 기다려지는 것이었다.

차를 기다리는 지루함을 잊기 위해서인듯, 소녀는 가끔 책을 들고 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읽는 일은 없었고 어떤 때는 제법 어른다운 표정으로 농사 걱정 같은 것도 하곤 하였다. 그런가 하면 오는 길에서 네잎 클로버를 얻었노라고 쪽 고른 이를 있는 대로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다.

사귀던 첫 무렵에는 화제라곤 별반 있을 리가 없었다. 그러나 그의 보드랍고 애애한 음성을 듣는 것만이라도 나는 부드러운 무엇인가가 사뭇이 마음에 얹혀 오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그것은 거의 도취(陶醉)였다. 격렬한 운동 끝에 오는 건강하고 싱싱한 흐뭇함이 아니고 ‘euphoria’랄까 차라리 무슨 마약 같은 것에 취하는 심정——말하자면 생명이 황홀하게 중절(中絶)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던 것이다.

앵두꽃이 지고 푸른 자방(子房)이 날로 부풀어 가며부터, 소녀는 어느덧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내가 동리 사람이 전하는 말에 인하여 그녀의 신분——일인이 가졌다가 두고 간 맥고개 과수원을 산 서울 피난민으로, 돈깨나 좋이 있는 듯하다는 집의 막내딸이라는 것을 안 것과 거의 같은 무렵에, 소녀도 누구의 입에서부터인지 나의 처지를 들었던 모양이었다.

이윽고 내가 것처럼 무심이 흘러 들던 ‘선생’이란 말 앞에서 주춤거리게 된 것도, 소녀의 입에서 구르듯이 흘러 나오는 예의 어미를 약간 추킨 ‘선생님’이란 말을 듣고서부터인 듯싶다. 마치 영덕이의 모습을 몇십 년 만에야 비로소 제대로 보이게 했던, 그 흰 동정을 갈



아 달은 검정 무명 두루마기와 눌러 쓴 중절모가 그러하듯, 내가 나를 일컫는 ‘선생’이란 존칭의 부조리성을 깨달으려면 꼭 그같이 부드럽고 애애하고 윤이 있는 소녀의 음성을 빌려야만 했던 것처럼. 하여튼 ‘선생’이란 말과 마주서고 보니 모든 것은 착오(錯誤)에서 출발한 것이고, 하나의 착오를 벗어나면 또 하나의 착오로 들어가, 그런 것들이 쌓여서 헛된 삶이 흘러 버린 것 같다. 애당초 그래도 인생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착오였다. 무(無)를 백 번 곱해 보았댔자 결국 무(無)밖에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길가에 굴러 있는 유리 사금파리 같은 것에 어찌다가 지나는 햇살이 떨어져, 일순 황홀하고 신비스러운 보옥마냥 찬란하게 빛난 일이 있다고 그 유리 사금파리가 그런 햇살의 장난스러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신비스러운 보옥이 되어 버리는 것이라고 하면 누가 웃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렇게도 황당하고 어리석은 착오가 나의 인생의 출발이 되었던 것이다.

보통 학교 오학년 땐가 보다. 열세 살——허리띠가 자꾸만 헐겁게 벗어져 고의춤을 한 손으로 움켜쥐고 다녀야 하는 장난꾸러기——읍내로 가는 삼등 도로에 굴러 있는 돌멩이만큼이나 보잘것없고 흔한 촌아이들 중의 하나였다. 그러면서 무언지 즐거웠었다. 오월이라 그랬던 것인지. 하여튼 보리 누룽지가 유일한 간식이 되는 두메에서도 백양나무 잎이 기름이나 바른 것처럼 윤이 흐를 무렵이 되면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시절이 오는 것이다. 산딸기 찾기에는 아직 짬이 있었지만, 그래도 백록(白綠) 가루나 뿌려 놓은 것같이 소롯이 보리 이삭이 피어 오른 넓은 들판이 넉넉히 시름거리가 되었다.

산 아래 두어 채 서 있는 초가집 대문이 뒷집 두봉이 대문니만큼 보일 정도로, 저만치 앞을 막고 서 있는 나직한 풀동산까지 온통 바다처럼 푸르른 들판이었다. 정신이 나도록 반짝 맑은 날이면 언덕에 오를 것도 없이 그 푸른 들 끝을 곱게 은빛으로 선을 친 것이 눈에 뜨



이는데, 그것이 바로 이 넓은 들을 풍욕하게 하는 낙동강 줄기가 햇빛을 되받으며 흐르는 모습이었고, 그 줄기는 그렇게 산 아래를 감돌아 동으로 반원을 그리며 뻗었다가 이리로 꾸부러져, 얼마 전부터 일인들이 어린 과수 묘목(果樹苗木)을 가꾸기 시작한 마을 뒤 맥고개 언덕 밑을 씻고 있었다. 그러나 마치 비가 온 뒤면 낙동강 푸른 물줄기에 누런 흙탕물이 섞이듯, 바다마냥 푸른 들판에 누른빛이 번지기 시작하면 촌아이들은 물가에서 붕어 잡는 재미를 깜박 잊곤 하였다.

언덕 밑 바위 위에서 어른 몰래 베어 온 이삭을 그슬려, 매끈거리리는 파아란 밀알을 검정이 묻은 손으로 입에 털어 넣는 맛만 해도 보리 누룽지에 비할 것이 아닌데다, 어른의 눈을 기어야 하는데 조마조마 아슬아슬한 재미가 없히는 것이다. 거기다가 수가 좋으면, 밀포기 밑에서 썩알까지 주워 낼 수 있는 것이다. 썩알을 주웠댔자 안겨서 까보려는 것도 아니었고, 또 한목에 두어 개씩이나 고 또래 푸진 손아귀 속에 감추어질 만큼 작은 것이고 보니, 밀이삭 그슬리던 불이 남아도 구워 볼 염을 내어 본 적이 없었던만, 굴리다 터뜨려 버리면서도 얻으면 그저 좋았다——무엇 때문에 멀리 뒤에 두고 온 어린 시절이 이즘 와서 이처럼 다가서는 것인가. 두봉이 영덕이 길진이 두리——그런 조무래기 셋동무들 틈에 끼어서 지내던 시절이 그저 행복하기만 했다면 거짓이 되고 마는데, 또 읍내를 가지고 ‘대처(大處)’로 알면서 살다 죽는 두메 농군으로 종시했었다더라면 하는 감개가 털어 말하여 결코 진심이라고 할 수는 없으면서, 돌이켜 자조의 쓴웃음이 이는 것이다.

그날도 그런 초여름의 화창한 날이었다. 설레이는 오월의 바람이 짙레꽃의 향기를 실고 창을 활짝 열어제친 오후의 교실을 불고 지나가는데, 점심 뒤에 녹지근해진 심신이 자꾸만 졸려만 왔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작문 시간이었다. 지난 사월에 갓 부임해 온 젊은 교사가 단 위에 올라서면서, 그것이 버릇인 낚는 듯한 고갯짓으로 앞머리를 추켜 올



리고는, 늘상 성을 내고 있는 것 같은 넓직한 입을 빙그레 벌렸던 것이다.

“나는 오늘 진심으로 이 기쁨을 너희들과 나누고 싶다. 내가 맡은 화원에 이처럼 충실하고 아름다운 싹이 돋을 줄은 몰랐다.”

가뜩이나 둔해 빠진 데다가 줄음에 흐리터해진 촌아이들이 이 연극적인 서두를 이해할 리가 있을 것인가. 그러나 젊은 교사는 무섭게 열광하여 자기 제자 중에서 그런 ‘천재의 편류’를 발견한 기쁨을 누누이 늘어놓고, 줄음이 한꺼번에 달아나 버릴 만큼 비장하게 떨리는 큰 음성으로, 유치한 동시(童詩) 한 절을 낭독했던 것이다.

단힌 문 틈새에서  
 뻗은 햇살은  
 하늘나라 먼나라의  
 고운 선녀가  
 띠어 보낸 댕기가  
 아니일까요  
 들어 한번 흔들면  
 무지개 서고  
 들어 두번 흔들면  
 꽃이 피어날——

선생님의 검붉은 목에 심줄이 불끈 솟고, 그 솟은 심줄 바로 위에서 끝에 노란 고름을 지닌 여드름이 하나, 불불 떨고 있었다. 구긴 작문 용지를 든 손은 그것보다 더욱 떨었다. 그 떨리는 손을 교탁 위에 눌러 엮고 이지러진 것 같은 얼굴로 쓰윽 한 번 교실을 훑었다.

모두들 어리둥절하였다. 솔직히 말하여 며칠 전에 그 서투른 동시를 쓴 나 자신도 열정에 떨리는 표준말로 외는 그 동시에, 자기가 쓴 것이라는 실감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길가에 꽃힌 유



리 사금파리에 지나는 햇살이 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나로서는 너무나 송구하고 분에 넘쳐, 두고두고 가슴을 누르는 존재가 되고 말았지만, 그 젊은 선생님은 나라는 ‘씩’을 기르기에 무서운 열정을 기울였던 것이다.

이미 들도 강도 나에게 즐거운 놀이터가 아니고, 강제적인 교사의 지도로 정말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는, 나의 문학적 재능과 관찰력을 집중시켜야 할 대상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서당개삼 년이면 어쩐다는 말대로, 물론 언제나 선생님의 정성스러운 수정이 끝난 것이기는 하였지만, 신문이라든가 잡지 같은 데 투고한 작품들이 상을 받게 되었고, 그런 일들이 거듭하여 엄두도 못 냈던 진학에의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다.

십여 년 후 나는 서울에 있었다. 들어가기 힘들다는 T대학 졸업반에 적을 두고, 배우면 ‘무엇’이 되리라는 착오 때문에 또 자신이 보잘것없는 두메의 가난한 농군의 자식이라는 열등감과, 거기서 오는 반발심 때문에 몸을 축내도록 공부를 했다. 학비를 대어 주던 어느 육영사(育英社)의 경영자가 모 신문사 사장이었으므로 자연 작품 발표의 기회를 얻게 되었고, 활자화한 이름이 드문드문 남의 눈에 띄게 쯤도 되어 있었다.

S를 사귀게 된 것은 그 무렵이었다. 가슴을 앓다가 작고한 고향의 은사를 강이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묻고, 서울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마음이 암암하였다. 자손이 없었던 탓도 있겠지만 숨을 거둘 때까지 내 말만 했다는 사모님의 말에, 감사와 슬픔이 북받치면서 기묘하게 마음이 놓여졌던 나였다. 자손도 재산도 없는 은사였기에, 넘치게 받은 은혜의 보답으로 그의 노후(老後)를 보살펴야 할 처지에 있었기도 했지만, 그런 의무가 없어졌다는 데서 오는 안도감보다는 나에게 그리는 그의 과대한 기대가 짐스러워서였었다고 하는 편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향에는 또 은사의 죽음보다 더욱 암담한 일이 있었다. 중학을 나



오던 해 완고한 할아버지의 강제로 맞아들이긴 하였지만 애초부터 보기도 싫어, 짐작이 갈 만큼을 일러서 친절으로 돌려보내 놓고 온 아내가, 죽어도 송씨 집 귀신이 되겠다고 돌아와 어른을 섬기고 있었다.

그런 찌부드드하고 암담한 심경에 S의 강렬한 성격이 파고들었던 것이다.

문학 청년들이 곧잘 모이던 다방 ‘마니또’에서였다고 기억한다. 계획한 모임이 아니고 어떡하다 어울리게 된 자리였다. 모두들 제대로 떠들어대는 중에, 한 청년이 눈에 띄었다. 파아란 갓을 씌운 스탠드의 광선을 왼쪽 밑에서부터 치켜 받은 까닭인지, 속눈썹이 긴 쌍꺼풀진 눈자위가 꺼져 보였다. 학생복 쓰메에리 위로도 한 치 가량이나 드러나 보이도록 미끈한 목이 해사했다.

탁자 위에 놓였던 화보 같은 것을 뒤적이며 떠들어대는 소리에는 귀도 기울이는 것 같지 않았는데, 갑자기 눈썹을 치키더니 그 치켜진 위치에서 보일까말까하게 눈살을 찌푸리고, 꿇는 듯이 한마디를 던지는 것이었다.

“뭐 외견(外見)과 존재와의 경계(境界) 같은 것은 없는 거야.”

이 말은 수궁하기 어려우면서도 왠지 내 마음에 꽂혔다. 얼마 전에 쓴 지독하게 낭만적인 시가 한 편 포켓에 들어 있었는데, 청년의 눈초리가 그 포켓 언저리에 머물러 비웃는 것 같아,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

나는 급속도로 S와 가까워졌다. 내려오는 명문가의 외아들이라 했다. 어쩌다 그 집에서 묵는 날 아침이면 언제나 보는 일이었지만, 자리 조반에 양즙이 들어오지 않는 날이 없었다. 광목 호청이 무겁다고 흠이불까지 얼음같이 다듬은 명주인 것이다. 더덕은 위장에 좋다 하여 고기 양념을 한 더덕구이, 초고추장으로 무친 생채 더덕 같은 것이 상을 떠나지 않았지만, 녹두(綠豆)는 양기를 줄인다 하여 청포묵은 상에 올린 일이 없었다. 다칠세라 상할세라 위하고 아끼는 것이



현연하였다. 그는 곧잘 씹어 뺨듯이

“손(孫)을 이으니 뭐니, 남을 종마(種馬)루 아나 뭐. 뭐 그리 기막힌 민족이라구 너절허게 씨만 퍼뜨리려는 거야.”

이런 말도 하였고

“개(個)의 소멸이 곧 절대(絶對)의 소멸이 아닌가. 늙은이들이 어리석지 뭐.”

하며 한쪽 어깨를 들먹여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혼정신성(昏定晨省)이랄까, 그런 예절도 각듯이 지키는 효자였고

“이놈이 이제 디디는 힘이 제법이란 말야.”

하며 학생 신분엔 난 지 대여섯 달 되어 보이는 아들 자랑을 퍼더버리고 하는 것이었다.

기생방 거래에 하도 환하기에 오입쟁이인 줄 알았더니, 카페 여급 앞에서도 얼굴을 붉히곤 하였다.

이 S가 ‘HP 클럽’의 주도자였었다면 주제넘게 민족 운동이니 애국 운동이니 하지 앓더라도 그의 강렬한 매력에 사로잡혀 있었던 내가, 킁킁한 감방 속에 굴러 있게 되었기로 오히려 놀랄 일이라고 할 수는 없었던 것이 아닌가.

독방이었다. 처음의 충격과 흥분과 공포가 사라지고 나니, 이 혼자라는 것이 견딜 수 없는 형벌이 되었다. 흔히 들은 옥살이 이야기에겐 동거하게 된 흉악범들에게서 받은 고심담들이 많았는데, 나에게겐 그런 시름조차 없었던 것이다.

서울에 불이라곤 한 사람도 없는 데다, 사상범이니만큼 친구들의 면회는 이쪽에서 삼가야 할 형편이었다. 쇠창살이 꽃힌 높고 좁은 창이 하나 서쪽으로 나 있어, 석양 때면 그리로 새어 들어오는 햇살이 찌들은 벽에서 망설이듯 어른거렸다가 물러가면, 어둠이 오고 하루해가 저무는 것이었다. 사바(娑婆)에서는 계절이 바뀐 모양으로 간수의 제복이 경장(輕裝)이었다. 그러나 영어(囹圄)의 몸에는 우수와 고



형의 계절뿐이 둘레에 있었고, 시간의 정지라는 의미에서 그 계절은 영원히 지속되어 가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희한하게도 K라는 친구의 방문을 받았던 것이다. 면회 시간은 십 분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날 밤부터 나는 잠을 이루지를 못하였다.

그럴 수가 없었다. 사건의 발단이 S의 자수에서 비롯했다는 것이다. S가 면회하러 오질 않았더니 물음에 고개를 흔드는 나에게 놀라 보이며

“저런——허지만 저두 부끄러워서겠지. 암 지금은 뭐 녹기 연맹이라든가 그런 데서 일을 한다지.”

하고선, 괜히 남이 눈 똥에 주저앉을 것이 뭐있느냐고, 은근히 전향(轉向)을 권하는 눈치였다. 뒤이은 며칠을 어떻게 지냈는지는 기억에 없다. 믿었던 하늘이 무너진 것이었다. 너무 벅찬 것들이 가슴에 오가서 범벅이 된 까닭이리라.

두 달 후 나는 경부선 남하 열차에 몸을 실고 있었다. 잠답하는 차안이 나에게서 그대로 광야였다. 그 고독 속에서 나는 S의 쇠진한, 그러나 너그러움을 잃지 않은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었다.

새하얀 병실 하얗게 칠한 침대 위에서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의 모습을 지니지 못하고 있었다. 심한 고문과 옥고에 주검과 진배없이 된 후에야 보석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아무도 책하지 않았다. 일경(日警)의 앞잡이가 되어 동지를 팔고 소위 전향 지도에 진력하고 있다는 K가, 이즘 양옥집을 샀다는 말을 하고 이를 가는 종제를

“하여튼 ‘1알썬’의 토지만이 필요한 것은 시체뿐이지, 산사람이 그것만으로 살 수는 없는 것 아냐?”

하고 가볍게 농쳐 버리는 것이었다. ‘톨스토이즘’이 고양되었던 시대였다. “사람에게는 얼마큼의 토지가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두고 한 말인 모양인데, 그 자신에게는 이제 짜장 ‘1알썬’의 토지만으로도 족하였던 것이다.



그를 선산에 묻고 돌아오면서, 진부한 표현이지만 나는 정말 백일이 어두웠다. 캄캄한 마음에 또렷해 오는 것이, 결국 하나의 감옥을 벗어나 또 하나의 감옥에 들어간 것이라는 무서운 확신이었던 것이다.

남으로 남으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 나는 나의 삶이, 기차의 속도만큼이나 빨리 퇴색해 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진정, 내가 뒤에 두고 오는 것은 ‘서울’뿐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베고 누웠던 목침을 밀어 놓고, 팔베개로 고쳤다. 목침이 딱딱해서가 아니다. 내 내부에 그렇게 몸을 뒤채이게 하는 것이 있는 것이다. 고쳐 눕는 바람에 눈길의 뜰로 갔다. 하아얀 마당이다. 저만치 장독대가 보인다. 뚜껑이 열린 장독이 대엿이——옆에는 한창 무성한 감나무가 서 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서 그런 것들의 그림자가 도려나 놓은 것처럼 선명하다. 그림자들이 바짝 오그라져 있다. 장독 그림자는 먼 데서 보면 장독을 받친 커다란 쟁반같이 보인다. 오정 무렵인가 보다.

소녀는 대개 오전이 아니면 석양 때 온다. 숨을 모았다 길게 뿜고 이쪽으로 돌아누웠다. 밝은 곳을 보던 눈이라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차차 눈이 익어 온다.

언제나처럼 너저분한 방이다. 바로 옆에 백날이 갓 지난 어린것이 지린내가 코를 쏘는 포대기 속에서 어르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서 웅아리를 하다가는 두 팔을 푸드득거리며 웃곤 하고 있다. 무척 순한 아이지만, 그렇게 표정이 수다스러워지면 뒤이어, 일쭉 울음이 터지는 것이다. 일으켜 달라는 의사 표시를 그렇게 하는 모양이다.

윗목에서는 일곱 살짜리와 다섯 살짜리가, 가게에서 몰래 훔쳐 온 것이 분명한 딱지로 후닥후닥 야단들이었다. 무엇이 억울한지 작은 놈이 씹씹거리는가 하면, 큰것이 으르릉댄다. 어린 놈들이면서 경상도 사투리로 거센 음성들이다. 꽤 색스럽게 짜진 메리야스 셔츠를 사다 입히던 모양인데, 깃고대가 늘어나 때에 결어 더덕이 된 목덜미가



드러나고 고대가 늘어진 만큼, 소매가 능청거리려 손등을 덮었다.

“이누무 자숙, 너 야마시했재?”

형놈의 음성이 험해진다.

“와, 보글이 통통 나재애(용용 죽겠지).”

아우놈이 제법 으스스대는데, 형놈의 약이 꼭두까지 오른 모양이다.

“머라꼬 머라꼬. 이누무자숙, 야마시해 싸 놓고.”

눈을 딱 부라리는데, 바른쪽 눈이 희뿌옇게 멀었다. 딱지가 와르르 — 쏟아지자 작은놈이 “이 — 〇” 하며 울음을 터뜨렸고, 갓난놈이 보탬이나 하듯 까르르한다.

어린 놈들의 싸움이건만 보고 있자니 제법 무시무시하다. 목숨을 걸다시피 덤빈다. 딱지라는 것이 것처럼 중한 것인가. 그래도 큰놈은 외눈으로 흘깃흘깃 내 눈치를 살핀다. 그러는데 밖에서 밀을 깔고 있던 아내가 뛰어들어와, 우선 두 놈을 번갈래로 쥐어박고 난 후 갓난이한테로 가서, 잔뜩 성난 얼굴로 아이를 끌어안으려다가

“세 사아나 이기이 우안 일고?”

급한 소리를 질렀다. 아닌게아니라 말이 아니다. 나부대는 통에 기저귀끈이 풀린 양, 온통 똥에 버무려 놓은 것 같다.

“머알라꼬 이런 년한테 태어났노. 알짱 같은 꼬친(사내아이)데 인물이 못났다 부재집 외아들로 태어나잖고오.”

아내의 녀두리는 나보고 들으라는 소리다. 그러나 나는 미안하기 커녕 울화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래야 되는 것인가. 억울했다. 분했다. 녀두리를 하면서 치마를 쓱 뒤집어 코를 핑 푸는 저 무지하고 추한 여자가 내 아내란다. 외눈이 섞어 굴같이 희뿌옇게 된 귀염성 없는 저 촌아이놈이 내 아들이란다. 이웁고 이 돼지울 같은 방이 내 방이고, 내 자신은 또 이 돼지우리 속에서, 짜장 돼지처럼 먹고 자고 자고 먹고 — 얼마든지 뜻있게 보람 있게 지낼 수도 있었던 세월을 헛살아 왔다. 무엇인가가 내 내부에서 터졌다. 나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내의 뺨을 후려갈기고



있었다.

이런 일은 이즘 와서 가끔 있었다. ‘송 선상’은 사람이 변했다고 남들이 수군거리는 모양인데, 진정 나는 나 자신을 태우는 불을 내 손으로 켜 들었던 것이다.

한바탕 벌어진 수라장이 거두어지자 나는 다시 팔베개를 하고 멀거니 천정을 쳐다보며 드러누워 버렸다. 처음에는 타일마냥 반듯 반듯한 무늬가 놓였던 반자지에, 빈틈없이 파리똥이 깔려져 있고, 구석구석에는 먼지가 숨같이 엉킨 거미줄이 걸려 있는 것이다.

벽으로 시선을 옮겼다. 역시 파리똥이 닥지닥지 얹은 찌든 벽이다. 그러나 보고 있는 동안에 눈시울이 뜨거워 왔다. 슬픔이 솟았다. 이 찌든 처참한 방이 그대로 나의 감정 풍경(感情風景)으로 보였기 때문이라.

몇 해를 그저 감정을 놓고 살아왔었다. 찌든 벽에 그런 서글프고 삭막한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모르고 지냈다.

달포 전의 일이다. 한동안 보이지 않던 소녀가 찾아와, 사고가 있었는지 그날따라 두어 시간이나 늦어진 버스를 기어코 기다리고야 돌아갔는데, 그 두어 시간을 가게 마루에 걸터앉아서 시간을 쪼던 것이다. 아내가 읍내로 물건을 하러 간 틈이다. 나는 우선 내 자신에게도 소녀의 상대를 그렇게 해 주는 변명이 섰었다.

소녀는 시집을 들고 있었다. 나는 재빨리 그 시집이 먼젓번 차편으로 부쳐져 왔었던 것임을 깨달았다.

“시를 좋아하시는군요.”

나는 눈으로 시집을 가리키며 미소를 띄웠다. 말치레가 아니라 종 종 문학지 같은 것이 부쳐져 오기에 오래 전부터 소녀는 문학 소녀일 것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이다.

“아네요. 친구가 심심할 것이라구 부쳐 주는 것이예요.”

하고 시치미를 딱 댄다. 가까이서 보니 불그레한 귀뿌리에까지 숨털이 덮였다.



“친구가요오. 촌에 산다니깐 글썸 치약 같은 것까지 부쳐 주잖겠어요?”

예의 어미를 추킨 애애한 음성이다. 새침하게 입을 옹쳐 물고만 있을 때도 있지만, 대개는 상대방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조잘대는 것이다.

“그래서 접대 보복으루, 이쪽에서 럭스 비누를 한 다스 부쳐 주었답니다.”

하고 생긱하더니 갑자기

“어머나 이거 옛날 잡지 아네요?”

하며 호들갑스럽게 소리를 질렀다.

아내가 물건을 싸 줄 양으로 꺼내 왔는지 소녀의 말대로 낡은 잡지가 마룻바닥에 굴러 있었던 것이다.

“네 그런가 봅시다. 에——십 년쯤 되는 거군요.”

“십 년——까마득하지요.”

고개를 가우똥 눕히는 것이 귀여웠다.

“하하…… 십 년이면 산천도 변한다니깐. 보시구 싶으시면 가지구 가시지요.”

“네 빌려 주세요, 재미있겠어요.”

“아마 딴 데두 여남은 권 있을 겁니다. 다아 갖다 보시지요.”

소녀는 무척 좋아하였으나, 막상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내가 일깨우지 않았던들 그냥 잊고 갈 뻔하였다.

그녀가 돌아간 후 나는 방으로 들어가 벽에 기대앉으며 눈을 감았다. 가슴이 박하잎이나 씹는 것처럼 쓰리고 싸아하여 오는 것이다. 무척 지친 것같이 전신이 녹지근했다. 그리고 있는데, 짜리문 열리는 소리가 나고 이어 아내의 굵은 음성이 떠들어대는 것이 들렸다. 머슴이 지고 온 짐을 부리는 모양이었다.

내키지 않는 것을 그래도 그저 있을 수 없어 일어서려는데, 맞은편 벽 설주 위에 시선이 갔던 것이다. 넘어가는 해가 거기까지 햇살을



뻗고 있어, 벽면이 환하였던 까닭인가. 하여튼 그 자리만이 같은 무늬의 좀 덜 찌든 벽지를 오려 붙이기나 한 것처럼 너비 여덟 치, 길이 다섯 치, 가량으로 색이 달라 보이는 것이었다. 순간, 나는 발에 못이나 친 것처럼 그 자리에 서 버리고 말았다.

그림들을 걸었던 자리임에 틀림이 없었다. 그 그림은 요절한 친구의 작품이어서 소중히 간직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이었는데, 그것이 없어진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란 말인가. 정녕 내 영혼까지도 그 그림과 더불어 잃고 말았던 것이 아니었던가.

확 몸이 달았다. 그 때서부터 ‘송 선상’은 사람이 달라졌던 것이다.

그 그림들 자리는 볼 때마다 어느 연상을 불러다. 그 ‘진홍 스웨터’의 소녀의 모습이다. 거기에는 또 늘 애애하고 부드럽고 윤이 흐르는 서울 사투리가 곁들였다.

아까부터 내다보던 뜰에 또 눈을 주었다. 바짝 오므라 붙었던 장독 그림자가 동쪽으로 길게 빠져 나와 있다. 소녀는 오후에 들리는 날이면 대개 이 무렵에 왔다. 자꾸만 가게 쪽으로 귀가 기울여지는 것이다. 그러다가 이내 황혼이 번지기 시작하면 나는 그만 훌쩍 들로 나가곤 하였다. 아랫도리가 휘청거렸다. 이런 날이 벌써 근 열흘이나 계속되었던 것이다. 열흘 전 나는 그에게 내 영혼 자체를 주고 만 것인가 보다. 그 시고(詩稿)들과 함께.

중복날이었다고 기억한다. 낙동강 명물인 뱀장어 굽는 냄새가 가게까지 흘러 나오고 있었다. 며칠 만에 들린 소녀는 서퇴(暑退) 후에 온 것이라고 하며, 돌아갈 때가 염려스러워 데리고 왔다는 일꾼인 듯한 굳건한 소년이 뒤를 따르고 있었다.

차부에 들어서 우편물을 찾은 후 생글거리며 들어와서

“저어기 선생님, 그 옛날 잡지 말이에요. 애가 온 김에 들려 갈 테니 다아 제게 팔아 주세요.”

하는 것이었다.



“먼점 건 다 읽으셨나요?”

하는 나의 물음에는 대꾸를 않고

“못 허신담 헐 수 없지만, 마침 기회가 좋으니깐 말이에요.”

하고 대답도 하기 전에 거절이나 당한 것처럼 한결음 물러섰다.

“아니 뭐 다 읽어 버린 거고, 어차피 휴지로 나갈 거니깐.”

나는 당황히 일어서서 잡지 봉치를 챙기러 방으로 들어갔다. 시렁에 올려놓은 채 오래오래 버려 둔 것이라, 내리는데 먼지가 목구멍을 쏘는 것이었다. 소녀를 위하여 한권 한권 정성스레 먼지를 털어 주고 있는데, 책 틈에서 나온 것이 시고 봉치였었던 것이다. 사건 직전에 S가 서둘러 출판하기로 되어 있던 시집의 시고였었던 것이다.

서투르나마 그것은 나의 영혼이 읊은 나의 청춘이었다. 아니 유일하게 남아 있는 나의 영혼의 불씨(火種)이기도 하였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도 안타까운 것들을, 그냥 그 헌잡지에 얹어 소녀에게 넘겼던 것인지 나도 모르겠다. 설사 소녀의 신선한 눈이 그 슬프고 낡은 노래를 읽으며 젖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인생과의 재회(再會)를 갖게 할 수는 없을진대, 나이 불혹(不惑)에 무엇에 씌기나 한 것처럼 그 시고들을 그대로 소녀에게 내어주게 될 것은 무슨 까닭이었는지 진정 모르겠다.

젊었던 시절, 어느 여학생에게 연문을 띄워 보내고, 사흘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한 일이 있다. 두렵고 초조하고 가슴이 아려 식욕조차 가셨으나, 그러면서 무엇에 취하기나 한 것처럼 벅차 오르는 것이 있었다. 그 때 그 심경이라면 웃을 것인가.

그러나 그 후부터 싹 발을 끊어 버린 소녀를 나는 그 때의 심정 그 대로를 가지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언덕에는 가을이 짙어 가고 있었다. 양지밭 비탈을 풀단풍이 덮었다. 하얗게 칠한 목책을 두르고 과수나무들이 고요 속에서 가을을 익히고 있었다.



보이지는 않아도 어디서인지 어린 염소 우는 소리가 들리고, 구름 한 점 없는 파아란 하늘에 솔개미가 한 마리 점잖게 원을 그리고 있다.

저만치 높이 과수원 주인의 집이 서 있다. 일인들이 두고 간 두메에서는 보기 드문 양옥집이다. 최근에 수리를 한 듯 붉은 슬레이트 지붕 밑의 창들이 산뜻한 흰 페인트로 칠해져 있다. 그리고 그 창에 햇빛이 맞비쳐 반짝거리고 있는 것이다.

진정 행복이, 그리움이 살고 있는 것 같다.

언젠가 읽은 어느 북구(北歐) 작가의 작품이 머리에 떠오른다——소박한 스칸디나비아의 전설이다. 아무래도 정들일 수 없는 타향의 남의 집을 살아 내야만 했기에, 그러면 정을 옮겨 온다고 들어온 대로 자기 집 노변(爐邊)에서 타고 남은 재를 끌어 모아 주인집 노변에 뿌리는 이야기였다. 그리움이 그대로 타향의 그 집으로 옮겨 가, 그 집을 살 수 없이 된 소녀는 이제 낮에나 밤에나 재를 뿌려 놓고 온 그 타향의 집을 그리곤 눈물지었다는 것이다.

나도 그런 그리움으로 여기까지 온 것인가 보다. 나는 내 그리움을 그 낡은 시고(詩稿)에 실어 저기 서 있는 붉은 지붕 밑으로 띄워 보냈던 것이 아니었던가. 소녀를 편모(片慕)하며 기다리다 기다리다 참지 못하여 예까지 온 것은 아닐 것이다. 어찌면 그 때부터 이내 내 앞에서 사라져 버린 그 소녀는, 내 가슴속에 무덤을 파서 거기에다 그리움을 묻고 간 요정(妖精)이었었을지도 모른다.

발을 멈추고 눈을 위로 던졌다. 언덕이라야 숨찰 정도의 높이는 아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가는 것이 저어되는 것이다. 차고 삼엄해서가 아니다. 더럽힐 수가 없다는 심정에서다. 바람이 이는 모양이다. 은빛으로 한창 팬 억새가 손짓을 한다. 결단이나 내리듯 걷기 시작했다.

그리 가파른 길도 아니건만 이마에 땀이 솟았다. 소매 끝으로 누르고 손쉽게 목책과 같은 빛으로 칠한, 낮은 문을 열어 과수원 안으로 들어섰다. 무서운 개가 있을 것인데 주인이 데리고 나갔는지 둘레는 고요한 채 있다. 낮닭 울음 소리만 한가하게 들리고.



공기가 짙다. 그러면서 신선하고 향기롭다. 잔뜩 성숙하고 절박한 공기인 것이다. 나무 아래를 거닐어 보았다. 나무마다 가득 찬 것들을 안고 겸손하게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바람이 지나간다. 그러면, 과수원 전체가 쏟아지는 파도처럼 철렁거리고, 소중스럽게 종이를 쓴 열매들이 잎 그늘 사이에서 고개를 내미는 것이었다.

가지가 휘도록 열매를 단 나무가 눈에 띄어, 그 밑으로 가서 나무위를 쳐다보았다. 다른 나무보다 큰 까닭인지 유달리 바람을 받는다. 바람이 지나간 후도 한참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그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매달린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열매를 쓴 종이가 색스러웠다. 낡은 미국 잡지를 잘라서 만든 봉지인 모양이다. 미끈한 여배우의 다리가 무릎에서 잘라져 있나 하면, 눈 위는 없는 묘령의 여성이 빨갭게 칠한 입술로 요염하게 웃고 있기도 하다. 그렇게 서서 보고 있자니 과수원 전체에 무슨 축제(祝祭)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다.

또 썩아 바람이 불어왔다. 잎이 지기 시작한 가지가 흔들려, 윗가지를 새는 햇살이 낙엽과 더불어 마구 떨어져 오는 것이다. 그 떨어져 오는 햇살을 받아 또렷이 눈에 띄는 종이 봉지들이 있었다. 울긋불긋한 미국 잡지장이 아니다. 가느다랗게 칸이 쳐 있다——원고용지였다. 잉크빛이 퇴색한 가는 펜 글씨지만 한눈으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차렸던 것이다.

## 천사

내가 만일

종다리를 데리고

구름 속에 집을 지어 산다면

나는 먼저



종다리를 기르는  
어머니가 되고

다음에는  
구름이 어디로 흐르는가를  
눈여겨보겠다.

또 그다음으로는  
눈물 뿌리며 고향을 이별하는 슬픔으로  
하늘에  
고운 무지개를 걸겠다——

무엇이 눈앞을 각 막았다. 하체가 건드려하는 것을 이를 악물어 참으며, 몸을 사과나무 등지에 기대고 눈을 감았다. 그제서야 계사 앞에서 개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얼마 후, 나는 낭끝에 튀어나와 있는 바위 위에 앉아 있었다. 눈아래를 흐르는 강이 잔광(殘光)을 되받아 금속처럼 번들거리는데, 강가에 우거진 갈대에는 벌써 황혼이 깃들며 있었다.

강 북편에 고기잡이 배가 하나 버려진 것처럼 떠 있다.

건너 강변에 엮드려 있는 초가에서 저녁 연기가 떠 오른다. 갈가마귀가 몇 마리 떼를 지어 이리로 날아들고 있었다.

바람이 자기 시작하여 아늑한 황혼이다. 그 아늑함이 그대로 내 가슴에 안겨 오는 것이다.

동녘 하늘에 초저녁 별이 나왔다. 이윽고 그 별 저쪽으로 영원을 향하여 하나의 창이 열리는 것이었다. 이 정밀과 안온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나도 모르겠다. 참기 어려운 일을 당한 타격과 절망에서 오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거짓 없는 말로 내 몸과 마음이 잠잠히 가라앉아 오고 있는 것이다.



기묘한 일이지만 그 열매를 썩 종이 봉지 틈에 내 묵은 시고를 보았을 때의 심경은 꼭 경악과 절망과 굴욕뿐만이 아니었다. 최초의 감정의 폭풍이 가라앉은 뒤에 형용할 수 없는 안도감(安堵感)이 왔던 것이다.

——마땅히 있어야 될 곳에 있게 되었다는 그런 안도감이—— 그것은 체념(諦念)이 아니고 차라리 겸허한 기쁨 같은 것이었다. 이윽고 지난 수십 일 동안 것처럼 거세게 나를 휘잡았던 초조와 흥폭이 잠잠히 가라앉아 가고 있는 것을 느꼈던 것이다.

강물은 흘러가면 다시 옛 강변에 되돌아오지 않고, 그 강가에 초가집 짓고 초조한 연기를 울리며 살다 죽는 사람 역시 덧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지만, 강은 유구히 흐르고 시간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우리는 밤이면 자고 아침이면 일어난다는 지극히 평범하고 무의미한 삶의 영위로써, 그 영원성에 참가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를 일이다.

아까 나왔던 별이 빛을 더해 간다. 건너 강변 초가에도 불이 켜졌다. 나는 낭끝 바위 위에 앉아서, 황혼과 더불어 질어 가는 허무 속에 몸을 맡기며 겸허하게 흐뭇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든 완전하고 영원한 것에 젖어 버리고 싶은 심경이었고, 허무란 그 영원하고 완전한 것의 한 형태였기 때문에——

다시 일기 시작한 바람이 강을 건너와서 낭끝을 쓸고 간다. 어느덧 서쪽 하늘에서 노을이 사라지고, 들도 강도 과수원도 또 나 자신도 하나로——어두움으로 풀려 들어가고 있었다.

(1956. 5. 21.)